

광양 청매실농원 성공 이유 있었네

특산품에 문화 옷입혀 '감성 마케팅'

윤유석 농진청박사 논문

‘소비자들은 닭장에서 기른 암탉이 낳은 달걀과 방목한 암탉이 낳은 달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덴마크 미래학자인 볼프 엔센은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방목해 키운 암탉의 달걀이 50%를 차지하는 덴마크의 달걀시장을 예로 들며 “어떤 방식이든 달걀의 품질은 비슷하지만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이야기가 있는 달걀을 선호한다”며 “미래 상품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기업·지역사회·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광양 청매실농원의 성공요인을 문화콘텐츠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토산업의 발전을 모색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유석 농진청농업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된 ‘농촌경제’에 실린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요소’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청매실농원은 매실이라는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매실산업과 매실문화 형성〉은 박사는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우수사례의 4가지 특징으로 ▲지역사회나 지역민이

문화콘텐츠 개발과 수혜의 주체가 되는 지역기반성 ▲향토자원의 산업화가 1·2·3차의 융복합 형태로 나타나는 융복합성 ▲향토자원이 비농업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개발돼 있는 문화상품성 ▲향토자원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이뤄지는 사업성 등을 꼽았다.

윤 박사는 청매실농원의 매실산업은 매실재배(1차 산업)→가공식품 개발(2차 산업)→매화축제(3차 산업)→매실 복합체험(6차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우수사례의 4가지 특징으로 ▲지역사회나 지역민이 문화콘텐츠 개발과 수혜의 주체가 되는 지역기반성 ▲향토자원의 산업화가 1·2·3차의 융복합 형태로 나타나는 융복합성 ▲향토자원이 비농업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개발돼 있는 문화상품성 ▲향토자원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이뤄지는 사업성 등을 꼽았다.

〈문화콘텐츠 농촌경제에 기여〉은 박사는 청매실농원의 매실산업은 매실재배(1차 산업)→가공식품 개발(2차 산업)→매화축제(3차 산업)→매실 복합체험(6차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 박사는 “청매실농원의 문화콘텐츠는 흥선리사의 저서 ‘박사가 약사이라 했?’과 자작 시·사진 등을 통해 매화를 ‘보석’으로, 자신을 ‘아름다운 농사꾼’으로 표현하며



향토자원 매실을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끌어올린 청매실농원 홍성리 명인.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서사의 사실성·진실성·일관성이 향토자원의 개성과 지역성과 결합돼 광양 ‘청매실농원’만의 이야기, ‘홍성리’ 청매실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고 호소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유사한 향토자원(특산물)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 거리가 있는 화자,

구체화된 수화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야기를 전달할 조건과 매체 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다담면 도시리에 자리한 청매실농원은 매실 농축액과 장아찌 등 매실 가공품과 전통 된장을 생산, 연간 4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기상관측소 예비 관측

풍향 등 12종 장비 갖춰...실시간 정보 제공

광양 기상관측소가 지난 5일부터 예비 관측을 시작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광주 지방기상청과 기상관측 공동협약을 맺고 그동안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상관측소를 준공했다.

중동 마동근린공원내 현충탑 맞은편에 세워진 기상관측소는 풍향·풍속·기온·습도·강수량·기압 등 12종의 관측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광양지역은 기상관측소가 없어 각종 기상관측 자료를 기상청이나 인근 시·군 자료에 의존해 왔으나, 기상관측소가 들어서며 광양시에서 관측한 자료를 기준으로 일기예보 및 각종 기상증명 발급 등의 기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의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런 예비관측은 한 달 정도 계속되며 정규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민원 등 공동활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상 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내 주요 전광판에 표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관측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재난방재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및 농업현장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대 여수 캠퍼스

영어 통역과정 개설

여수시가 최근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비한 대학생 영어 통역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국제 해양관광·레포츠 수도’ 여수를 이끌어갈 통역 자원봉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전남대 재학생 중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학기별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와 행사실무 영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원어민 강사 답임제로 운영하며, 여수의 문화관광, 엑스포 홍보·안내, 현장실습을 겸한다.

여수시 공문서 교육문화사업장은 “여수를 안내하는 통역봉사를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전 의식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새 얼굴

“복지관서 댄스·요가”

‘주암댐 실버교육’ 호평

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에서 주최하고 청암대학 사회복지사업단이 주관하는 ‘주암댐 실버교육’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주암댐 실버교육은 주암호 관리단과 청암대 사회복지사업단이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래교실과 댄스,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 염동민(75·문덕면 운곡리)씨는 “무려한 시골 생활에 실버교육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박람회 지원사업 마무리 총력”

심동현 여수 해양항만청장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박람회 지원사업들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심동현(54)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청 직원 모두 알마남지 않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수질개선 등 박람회 지원사업들을 올연 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청장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뢰성 있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심 청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지난 1983년 해양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해양보전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북

“입주 안할거면 방패”

새만금경제청, 군장산단 미착공기업 부지 환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군장 산단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협약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수년째 착공조차 않은 기업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8일 새만금·군산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300여개 업체가 군장산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73개 업체는 장기간 착공을 미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투자 MOU의 맹점을 악용해 부지만 계약한 채 투지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철수 의사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청은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투자를 서둘러 주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청은 입주계약 체결후부터 3

년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기간(6개월)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경제청이 미착공 기업에 대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미착공업체 수가 많아 산단 가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용지가 부족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장산단은 분양률이 100%에 달해 용지가 없는 데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공장용지가 없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올해 법적 착공기한이 되는 이들 기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땅을 회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전주 ‘한옥마을길’

군산 ‘미소길’

정읍 ‘정읍사길’

완주 ‘건강숲길’

임실 ‘물안개길’

‘걷고 싶은길’ 만든다

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연말까지 55억 투입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예향런지 마실길’ 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5억원이 투입돼 ▲한옥마을 둘레길 10km ▲군산 미소길 18km ▲정읍사 오솔길 17.1km ▲군산 ‘입피’ 간이역과 대야들·만경강을 연결하는 미소길 ▲정읍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완주군 ‘편백 건강숲길’ ▲임실군 ‘옥정호 물안개길’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한 ‘건강생활 녹색길’과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을

공원~정읍천 상류 생태하천~송산마을 웨스턴커피 등 총 17.1km 길이의 코스(도보 10.9·자전거 6.2km)로 조성된다.

전주 ‘한옥마을 녹색 둘레길’은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산성천~남고산성~원당천~전주천을 거쳐 한옥마을로 되돌아 오는 코스다. 군산 ‘미소길’은 임피면 읍내리~술산리~대야면 죽산리~광교리로 이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보중심, 생태중심의 녹색길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수요급증에 부응하고 올바른 녹색길 이용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박기섭기자 knews@

한전 2020년까지 전국에 ‘스마트미터’ 보급

KEPCO(한국전력)는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조1367억원을 들여 전국 1900만호에 차세대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미터’는 기존의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와 달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고객에게는 전력품질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직접 제어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EPCO 전북본부는 고객

을 구분하고 월 400kWh 미만의 주택용 고객에게는 2만원 수준의 E-type(경제형) 계기를, 4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주택과 상가, 심야전력 고객에게는 피크(Peak)관리 및 실시간 요금관리 기능이 부가된 5만원 대의 G-type(일반형) 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품질의 감시·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전압·주파수·고조파 관리기능을 추가로 장착한 S-type(특수형) 계기를 개발, 설치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빵~ 터진 ‘제빵 나눔터’

제과·제빵 전문특화 교육을 받은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회원들이 ‘이웃사촌 빵 나눔터’에서 빵만들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7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간식으로 빵을 제공하기 위해 빵 나눔터를 개소했다.

〈전주시 제공〉

단신

김제 보건소 모기서식처 2차 효과분석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동절기 유충구제를 위해 모기서식처 2차 효과분석을 실시했다. 1차 조사결과 64개소 중 33개소에서 모기유충과 성충이 발견돼 51.5%의 높은 겨울철 모기 서식률을 보였다. 2차 조사결과 64개소에서 모기 100% 퇴치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방역약품과 유류비 절감 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소장은 “여름철에 모기 밀집도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 연무·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군산 대야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군산시는 도·농간 체육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야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을 확장 조성한다.

시는 3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6월까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라커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부지 1만2571㎡ 중 90%인 1만1298㎡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정읍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

정읍시가 올해를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해’로 정하고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타기 보증을 위해 이달부터 전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시는 자전거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 자전거도로 터 닦이기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청소년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순창군은 올해 4억3000만원을 들여 순창청소년센터에 40kW, 순창읍사무소에 20kW 등 총 6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매년 8만3220kWh 전기를 발전해 사무실과 주민 편의시설 전

력으로 사용하게 되며, 연간 800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올해 53개구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설치비의 50%) 외에 200만원의 설치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